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 방침

레이와 2년 2월 2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결정

1. 현재의 상황과 기본 방침의 취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예방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소규모 환자 클러스터(집단)가 파악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 대규모의 감염 확대가 확인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감염의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집단)이 다음의 클러스터(집단)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며,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이러한 감염 확대 방지책에 있어서, 환자의 증가의 스피드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은, 이후의 국내에서의 유행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하여, 이 시기는, 이후, 국내에서 환자수가 대폭으로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중증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료제공 체제 등의 필요한 체제를 준비할 준비 기간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나라나 지방 자치단체, 의료 관계자, 사업자,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더욱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강구하고 있는 대책과, 이후의 상황의 전개를 예상하여 강구해야 할 대책을 현시점에서 정리하고, 기본 방침으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내가는 것이기도 하다.

말그대로 지금이, 이후의 국내에서의 건강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시기이다.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는 2.에서 나타내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을 보고, 감염의 불안에서 적절한 상담을 하지 않고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일이나 감염하기 쉬운 환경에 가는 것을 피하도록 부탁한다. 또,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철저히 지키고, 감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부탁한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

-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이며, 공기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
폐쇄 공간에 있어서 근거리에서 많은 사람과 회화하는 등의 일정의 환경 아래라면, 기침이나 재채기가 없더라도 감염을 확대시킬 리스크가 있다.
- 감염력은 사례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특정인으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확대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한편, 많은 사례에서는 감염자는 주위의 사람에게 거의 감염시키지 않았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1주일 전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강한 탈력감(권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또,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병에 걸리더라도 경증이거나, 치료되는 사례도 많다.
중증도에 있어서는, 치사율이 지극히 높은 감염증 정도는 아니나,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높은 리스크가 있다. 특히, 고령자·기초 질환을 가진 자에게는 중증화 될 리스크가 높다.
- 인플루엔자처럼 유효성이 확인된 항 바이러스약이 없으며, 대 증상

요법이 중심이다. 또, 현재이 있어서, 신속 진단용 간이검사 키트가 없다.

- 한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 등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3. 현시점에서의 대책의 목적

- 감염 확대 방지책에서, 우선은 유행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면서, 환자의 증가의 스피드를 가능한 한 억제해서, 유행의 규모를 억제시킨다.
- 증증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멈추는 것에 만전을 기한다.
- 사회·경제에 대한 임팩트를 최소한으로 막는다.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 방침의 중요 사항

(1) 국민·기업·지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국민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이나 호소를 하여, 냉정한 대응을 촉진한다.
 - 발생 상황이나 환자의 병태 등의 임상 정보 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
 -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의 일반 감염 대책의 철저
 -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여지는 경우의 휴가 취득, 외출의 자숙 등의 호소
- ② 환자·감염자와의 접촉 기회를 줄이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서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여지는 직원 등에게 휴가 취득의 권장, 재택 근무나 시차 출근의 추진 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 ③ 이벤트 등의 개최에 있어서, 현시점에서의 전국 일률적인 자숙 요청을 하지는 않으나, 전문가 회의에서의 견해를 참고로,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서, 이벤트 등을 주최할 때에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감염의 확대, 회장의 상황 등을 염두하여, 개최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 ④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 주재하는 해외 국민 등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지원을 한다.
- ⑤ 국민, 외국 정부 및 외국인 여행자에게 적절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여, 국내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와 루머 대책으로 이어간다.

(2) 국내에서의 감염 상황의 파악(서베일런스(발생동향조사))

가) 현행

- ① 감염 증상에 기초한 의사의 요청에 따라 의심 질환자를 파악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PCR검사를 실시한다.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 증상에 기초하여, 적극적 역학 조사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한다.
- ② 지방 위생 연구소를 시작으로 한 관계 기관(민간의 검사 기관을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검사 기능의 향상을 꾀한다.
- ③ 학교 관계자의 환자 등의 정보에 대해서 도도부현의 보건위생부국과 교육위원회 등 부국과의 사이에서 적절하게 공유를 한다.

나) 이후

- 지역에서 환자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폐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확진단을 위한 PCR검사로 이행하면서, 국내에서의 유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일런스의 구성을 정비한다.

(3) 감염증 확대 방지책

가) 현행

- ① 의사의 요청 등에서, 환자를 파악한 경우, 감염증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적극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건강 관찰, 외출 자숙의 요청 등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노동청이나 전문가와 연대하면서, 적극적 역학조사 등으로, 개개인의 환자 발생을 기준으로 클러스터(집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함과 함께, 환자 클러스터(집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환자 클러스터(집단)에 관계된 시설의 휴업이나 이벤트 자숙 등의 필요한 대응을 요청한다.

- ②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 시설내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다.
- ③대중 교통기관, 역, 기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다.

나) 이후

- ①지역에서 환자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 적극적 역학조사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건강 관찰은 축소하고, 널리 외출 자숙의 협력을 구하는 대응으로 시프트한다.
 - 한 편,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환자 클러스터(집단)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한다.
- ②학교 등에 있어서 감염 대책의 방침의 게시 및 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의 적절한 실시에 관해서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설치자 등에 요청한다.

(4) 의료제공 체제(상담 센터/외래/입원)

가) 현행

- 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의심하는 쪽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를 정비하고, 24시간 대응을 한다.
- ②감염의 불안에서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상담 없이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감염될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이 때문에, 우선은,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연락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감염 증상의 정확한 파악,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동 센터에서 귀국자·접촉자 외래로 유도한다.

- ③ 귀국자·접촉자 외래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 질환자로서 감염증법에 따라 신청을 함과 동시에 PCR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 감염증법에 기초하여 입원 조치를 한다.
- ④ 이후의 환자수의 증가 등을 지켜보고, 의료 기관에 있어서 병상이나 인공 호흡기 등의 확보를 진행한다.
- ⑤ 의료관계자 등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법의 정보 제공을 함과 동시에, 치료법·치료약이나 백신, 신속 진단용의 간이 검사 키트의 개발 등에 노력한다.

나) 이후

- ① 지역에서 환자수가 대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외래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 기관에서, 진료 시간이나 동선을 구분하는 등의 감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의심하는 환자를 받아들인다(또, 지역에서 협의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환자의 진찰을 하지 않는 의료 기관(예:투석의료기관, 산부인과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그와 함께, 중증자를 다수 받아들일 예정의 감염 지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순서대로 귀국자·접촉자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감기 증상이 경도인 경우는, 자택에서의 안정·요양을 원칙으로 하고, 상태가 변화된 경우에, 상담 센터 또는 주치의에게 상담하고, 진단을 받는다. 고령자나 기초질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중증화하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조기·적절한 진단으로 연결한다.

감기 증상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질환을 가진 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투약 등에 대해서는,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전화를 통한 진료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체제를 다시 구축한다.

- ②환자의 계속된 증가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을 염두에 둔, 병상이나 인공 호흡기 등의 확보나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예를 들면,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증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등) 등, 적절한 입원치료의 제공 체제를 정비한다.
- ③원내 감염 대책의 지속적인 철저를 꾀한다. 의료 기관에 있어서 감염 제어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한다.
- ④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 확대 방지책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중증화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입원 치료로 연결한다.

(5) 예방 대책

국내에 대한 감염자의 급격한 유입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현행의 입국 제한, 도항 중지 권고 등은 계속해서 실시한다.

한편, 검역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후, 국내의 의료 자원의 확보의 관점에서, 국내의 감염 확대 방지책이나 의료제공 체제 등에 대해서 운용을 시프트해간다.

(6) 기타

- ①마스크나 소독액 등의 증산이나 원활한 공급을 관련 사업자에

요청한다.

- ② 마스크 등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확보되도록, 과도한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냉정한 대응을 요청한다.
- ③ 국제적인 연대를 긴밀히 하고, WHO나 여러 외국의 대응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에 노력한다. 또,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WHO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이후의 대책에 활용해간다.
- ④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아동 학생 등을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지원하거나 따돌림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⑤ 환자나 대책에 관련된 자들의 인권에 배려한 조치를 한다.
- ⑥ 공항, 항만, 의료기관 등에 있어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경계 경비를 실시한다.
- ⑦ 혼란을 틈탄 각종 범죄를 억제함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한다.

5. 이후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이후, 본 방침에 기초하여, 순차대로, 후생노동성을 시작으로 한 각 부성이 연대하여, 이후의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며,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통지를 발출하는 등 각 대책의 상세를 나타내간다.

지역마다의 각 대책의 교체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선은 후생노동성이 그 방식을 나타내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노동성과 상담하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실시한다. 또,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의 의견을 잘 들으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태의 진행이나 새로운 과학적 지견에 기초하여, 방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에 있어서,

전문가 회의의 의론을 참고로 하며, 때때로, 방침을 갱신하여, 구체화해간다.